

# 신안 흑산 일대 수온 관측시스템 '구멍'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신안 양식장의 전복과 어류의 집단폐사 피해 규모가 500여원을 넘어선 가운데 흑산도 일대에는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에 수온 관측시스템이 없어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수온 특보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립수산과학원 고수온 특보와 전남도,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부터 여수~고흥 거금도, 해남 갈도~영광 안마도를 시작으로 전남 서남해안 일대에 고수온주의보가 43일간 이어졌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C에 도달할 때, 경보는 28°C이상이 3일간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이번 양식장 피해가 컸던 신안 흑산도 일대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

## 압해·자은 등 3곳만 시스템 가동 면바다 '고수온 특보 사각지대'

신안 압해 등 내만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지만, 흑산, 하의, 도초 등 면바다는 주의보 발령이 없었던 것.

이는 흑산 등 면바다 지역은 30분 마다 수온을 실시간 체크하는 수온관측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설마 신안지역은 압해, 자은 등 내만에 위치한 3곳만이 수온관측시

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수온관측시스템이 없는 지역은 정확한 수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해 고수온 주의보가 내릴 수 없는데다, 피해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흑산 등 신안 면바다의 경우 고수온과 거리가 멀다보니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설치가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시스템 설치가 내만이나 자주 고수온이 발생하는 지역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 원인 규명을 놓고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흑산도 일대가 고수온 피해 인정을 받을 것인가가 주목된다.

1차적으로 고수온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도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안지역은 지난 2일 현재 315여가에서 양식 중인 전복과 우럭 4742만 마리가 폐사해 513억 여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어종별로는 전복이 230여가 3040만 마리(227억원), 우럭은 83여가 1681만 마리(285억원)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 日태풍 사망 11명·부상 610명으로 늘어

일본을 강타한 제1호 태풍 '제비'로 인한 사망자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5일 NHK 및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서일본에 상륙한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5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전국에서 11명이 숨지고 61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8명이 사망한 오사카(大阪)부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강풍에 지붕을 뚫고 들어온 함석에 맞아 사망했다. 한 50대 남성은 길에서 강풍에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2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총 8명이 숨졌다.

이외에 시가(滋賀)현 1명, 아이치(愛知)현 2명, 미에(三重)현 1명이 강풍에 날아온 물체에 맞거나 넘어져 사망하는 등 총 11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전국에서 총 610여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오사카에서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치현 55명, 기후(岐阜)현 45명, 시가(滋賀)현에서 36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오사카를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317채에 달하는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정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혼슈 서부 긴키(近畿)지역 약 54만 가구에서 정전일이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 간사이(關西)국제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이 공항은 전날 해일로 활주로 등이 침수되면서 폐쇄됐다. 이에 대해 공항과 오사카 내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파손되면서 이용객 3000여명은 전날 밤 공항에 고립됐다. 이에 공항 측은 이날 오전 고속선과 버스를 마련해 이용객들을 공항에서 오사카 내륙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부 해역 인공섬에 위치해, 다리 하나로 오사카 내륙 지방과 연결된다.

공항 측은 정원 110명의 고속선 3척을 동원해 15~20분 간격으로 승객들을 간사이공항에서 인근 고베(神戶)공항으로 수송하고 있다. 또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던 공항과 오사카 내륙 지역을 잇는 다리 가운데 파손되지 않은 부분은 통행이 허용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버스로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간밤 간사이공항에 고립됐던 이용객들은 정전으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밤새 더위에 시달렸다고 하소연 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거의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에 따르면 간사이공항 여객터미널은 5일 오전에도 거의 전충이 정전된 상태로 에어컨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 필리핀 세부 시장 충격 사망...3개월째 3명

필리핀 세부 지역 소도시의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 최근 3개월 간 필리핀에서는 총 3명의 시장이 피살됐다.

CNN 필리핀에 따르면 마리아노 블랑코 론다시장은 5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원미상의 과한으로부터 총을 맞고 숨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의자나 동기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타나우안 시의 안토니오 할릴리 시장은 지난 7월 시청 앞 국기게양식에서 저격수에게 총을 맞고 피살됐다.

누에바에시하주에 있는 제네랄티오 시의 페르디난드 보테 시장도 비슷한 시기 오보바이를 탄 과한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 세계 최초 무인 로봇선 대서양 횡단 성공

두 달 반 전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출발한 무인 로봇선 SB 메트가 사람 없이 혼자 힘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최초로 성공했다.

노르웨이의 오프쇼어 센싱 AS가 건조한 SB 메트 호는 지난 여름 내내 동쪽으로 동쪽으로 항해를 계속한 끝에 지난 8월28일 아일랜드 해안의 결승선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B 메트호는 처음으로 사람 없이 무인 항해 기술만으로 거센 파도가 이는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인 로봇선 '마이크로트랜셋 쉘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무인 로봇선의 대서양 횡단 성공은 해양 연구나 국경 치안 활동, 거칠고 먼 바다에서의 감시 활동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해 이러한 임무 수행을 무인 로봇선을 이용해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로봇에 의한 무인 항해 선박의 영역을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무인 운항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름에 가려진 가을 하늘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파란 하늘 아래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 청암대 사무처장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져

순천청암대 국 모(54) 사무처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건에 이어 또다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억 배임 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의 여교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 교수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스님과 연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 낸 국 사무처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

국 사무처장은 강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특정 교수들에 대해 5여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6년에도 손해배상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국 사무처장에 대해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청암대는 국 사무처장이외에도 지난달 간호와 조모(58) 교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부미용과 마모(29) 전조교는 위증죄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강 전총장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준 피부미용과 윤모(43) 교수도 불구속기소됐다. 순

천지청은 광주교검의 제기수사명령이 내려온 마 전 조교에 대해 위장취업으로 인한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

이처럼 대학 교직원들이 수년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 모(53)씨는 "보직 교수 등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며 "피해교수들을 5년동안 6건의 징계를 가하고 아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 방침도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기독병원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광주기독병원 노조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병동 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진료 등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5일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인원은 간호부서와 진료 지원부서, 사무부서 등 350여명이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근무한다.

또 이 병원에는 현재 5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병동 근무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진료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병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의사 125명은 정상근무 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 직원 등을 총 동원해 진료와 행정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 지지 않도록 근무체계를 구성했다.

기독병원노조와 사측은 지난 7월부터 임금인상 7%와 인력 증원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임금 총액의 4%까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1.9%로 맞서 타결되지 않았다.

최남규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